

독일어 양상불변화사 doch의 우리말 번역 가능성

김희자(순천향대)

1. 양상불변화사

양상불변화사는 그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불변화사의 하위부류이다. Helbig¹⁾는 불변화사의 개념을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째는 의미론적 기준과 문장론적 기준을 배제하고 형태론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어형 변화하지 않고 비교변화도 하지 않는 모든 단어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접속사, 전치사, 부사, 양상어 Modalwörter, 부정불변화사 Negationspartikeln, 협의의 양상불변화사가 속한다. 둘째는 첫째보다 그 범위를 축소하여 부정불변화사, 양상어, 양상불변화사만을 가리킨다. 셋째는 어형변화하지 않는 단어 중에서 통사론적으로 보아 전치사나 접속사와도 다르고 또한 부사나 양상어와도 다른 단어를 가리킨다. 이의 하위 부류에는 양상불변화사로도 불리는 뉘앙스불변화사 Abtönungspartikel, 등급 불변화사, 점층불변화사, 시간불변화사, 응답불변화사, 비교불변화사, 감탄불변화사, 부정불변화사, 부정형불변화사가 있다. 넷째 개념은 가장 좁은 것으로 양상불변화사만을 가리킨다. 이들은 양념어 Würzwort 또는 채색어 Färbewort로도 불린다. Duden에 보면 불변화사를 부사, 접속사, 전치사로 나누고 부사의 하위 부류에 양상부사 Modaladverb를 두고 다시 그 하위부류 중의 하나로 뉘앙스불변화사를 두고 있다. 뉘앙스불변화사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²⁾

Bestimmte Adverbien werden vor allem in der gesprochenen Sprache verwendet, um eine Aussage zu färben und abzutönen. Der Sprecher zeigt mit ihnen seine Verwunderung, seine Verärgerung, seinen Zweifel, seine Resignation u. ä. an. Sie werden als "Füllwörter" oder "Würzwörter" eingestreut.

(특정의 부사들이 주로 구어에서 진술의 어감에 변화를 주기 위해 사용된다.

1) Helbig(1994); Lexikon deutscher Partikeln, S. 19ff.

2) Grebe(1973); Duden Bd.4 Grammatik, S. 310.

화자는 이를 통해 경탄, 분노, 의심, 체념 등을 나타낸다. 이들은 장식어 또는 양념어로 뿌려진다.)

본 논문의 양상불변화사는 Helbig의 불변화사 개념 중에서는 가장 좁은 의미의 넷째 개념에 해당하고 Duden에서의 뉴양스불변화사에 해당한다. 양상불변화사의 명칭은 또 다른 명칭들 즉 뉴양스불변화사, 양념어 또는 채색어, 장식어 등이 양상불변화사의 기능을 폄하하는 느낌을 주는 것과는 달리 그 기능이 의사소통적 화용론적 영역에 있음을 인지하고 연구하려는 입장을 대변하기에 더 적합해 보인다.

구어체에 주로 사용되며 단어 자체의 뜻은 빈약하고 어감의 변화만을 주고 양념처럼 문장의 주재료는 아니어서 뿌리면 보다 맛을 낼뿐이라는 인상을 주던 양상불변화사에 대한 연구는 종래의 연구방법으로는 그 연구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한편 소홀히 여겨도 되는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한국에서 독일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도 단어 자체의 의미가 빈약하고 문맥을 통해서만 그 의미가 유추되기 때문에 다루기 절끄러운 영역으로 간주되어 늘 밀어 놓았던 영역이다.

독일에서 언어학의 “화용론적 전환”의 전기를 맞아 옆으로 밀어 두었던 양상불변화사 연구가 전성기를 맞았다.³⁾ 따라서 양상 불변화사의 의미나 기능을 보다 진지하게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행하여지고 있다.⁴⁾ 양상불변화사는 일반적인 단어가 문법화를 통해 음운론적 상실, 문장론적 자유의 상실, 의미론적 상실을 겪고 그 결과 화용론적 강화를 가져온 것이다.⁵⁾ 따라서 양상불변화사의 특징은 대부분 단음절의 짧은 단어이며⁶⁾ 변화하지 않으며, 문장성분을 이루지 못한다. 또한 문장 첫 위치에 오지 못하며, 강세를 지니지 않으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부정될 수 없고 추상적이고 부분적으로 모호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⁷⁾

3) Helbig(1994); a.a.O., S. 16; Diewald(1997); Grammatikalisierung, S.73.

4) 독일에서의 연구와 병행하여 국내에서도 점차 양상불변화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광병휴(1995); 뉴양스 불변화사 Abtönungspartikel 'auch'의 번역시도: (1996) 불변화사 'noch'의 의미론:(1997) 독일어 불변화사 'auch'와 한국어 조사 「-도」: 박상욱(2001); 독일어의 양상불변화사와 초점: 신운섭(1988); 독일어의 불변화사에 관한 의미론적 고찰: 천복자(2001); Die Vermittlung von Modalpartikeln im Deutsch als Fremdsprache-Unterricht 등이다.

5) Wegener(1998); Zur Grammatikalisierung von Modalpartikeln, S. 38ff.

6) Helbig(1994); a.a.O. S. 33.

7) Diewald(1997); a.a.O. S. 73f.

모호한 의미와 기능은 화용론적 강화로 풀이될 수 있다. Hentschel의 설명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⁸⁾:

Sie bezeichnen keine Objekte der außersprachlichen Wirklichkeit, sondern drücken Relationen aus, die zwischen den bezeichneten Objekten oder Sachverhalten bzw. zwischen diesen und dem Sprecher und/oder Hörer bestehen.

(양상불변화사는 언어외적 현실에서의 객체를 나타내지 않고 지칭되는 객체나 사태들 사이의 관계, 또는 지칭되는 객체나 사태들과 화자 또는 청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특히 Diewald는 양상불변화사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틀을 제시하는데 이 틀에는 세 단계가 존재한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관여적 상황, 표현. 양상불변화사가 관계하는 전제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특성을 지니므로 화용론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선행텍스트이고 앞선 것 혹은 이미 주어진 사항에 관여하기 때문에 선행텍스트라는 것이다. 여기에 발화에 관여적 상황이 설정되고 마침내 양상불변화사가 포함된 표현이 행하여진다는 것이다.⁹⁾ 양상불변화사의 영향 범위는 언어 단위가 아니라 상황적-화용론적 요인으로 확대된다. doch를 포함한 문장을 예를 가지고 위의 설명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Jemand denkt: Wir sind nächste Woche da.
 관여적 상황: Ich denke: Wir sind nächste Woche nicht da.
 -> 표현: Wir sind doch nächste Woche da.

양상불변화사를 포함한 문장은 관여적 상황에서 화용론적 이전텍스트를 실제 표현에 요약하여 끌어들이는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양상불변화사의 번역 가능성의 어려움은 언어로 실현되지 않은 화용론적 이전텍스트와 관여적인 발화 상황을 연상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양상불변화사를 하나의 독립된 문법 범주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 논의

8) Hentschel(1986); Funktion und Geschichte deutscher Partikeln, S. 120.

9) Diewald(1997); a.a.O. S. 77.

중이며 또한 양상불변화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Duden은 aber, auch, denn, doch, eben, etwa, halt, ja, mal, nur, schon, vielleicht, wohl 의 13개를 제시한다. Helbig는 aber, allerdings, also, auch, bloß, denn, doch, eben, eh, eigentlich, einfach, einmal, erst, etwa, gar, gleich, halt, immerhin, ja, jedenfalls, mal, man, nun, nun einmal, nur, ohnehin, ruhig, schließlich, schon, sowieso, überdies/im übrigen, überhaupt, übrigens, vielleicht, wohl 등 36개를 제시한다. 그러나 불변화사의 중심을 이루는 협의의 뉘앙스불변화사 또는 진짜 뉘앙스불변화사로 aber, auch, bloß, denn, doch, eben, einfach, etwa, halt, ja, mal, nur, schon, vielleicht를 제시한다.¹⁰⁾ Helbig/Buscha는 Duden의 13개 외에 bloß와 eigentlich을 더하여 15개를 제시한다.¹¹⁾ H. Weydt/E. Hentschel은 위의 15개 외에 einfach, erst, ruhig를 더 첨가한다.¹²⁾

doch는 모든 학자들의 분류에서 핵심적인 양상불변화사에 속하며 출현 빈도수도 매우 높다.¹³⁾ 또한 출현하는 문장유형도 아주 다양한 양상불변화사에 속한다. 본 논문은 독일어 양상불변화사 doch의 의미를 Diewald의 설명 모형에 따라 문장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려 한다.

2. 양상불변화사 doch의 의미적 특성

doch의 의미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doch는 고대고지독일어 ahd.에서 thoh, doh의 형태로 등장하며 대립적인 aber, jedoch, doch의 의미나 인용적인 obwohl, dennoch, trotzdem, gleichwohl 의미의 접속사나 부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고대고지독일어에서 이미 양상불변화사의 용법이 발견된다. 소원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부문장에서 소망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¹⁵⁾

10) Helbig(1994); a.a.O. S. 36.

11) Helbig/ Buscha(1984); Deutsche Grammatik, S. 487.

12) Weydt/ Hentschel(1983); Kleines Abtönungswörterbuch S. 4.

13) Hentschel(1986); a.a.O. S. 128.

14) Diewald(1997); a.a.O. S. 90f.

inti batun inan thaz sie thoh tradon sinis qiuuates ruortin. (Tatian 82,1)
(Und baten ihn, daß sie doch einen Faden seines Gewandes berührten.)

중세독일어에서는 부문장에서 뿐만 아니라 주문장에서도 양상불변화사의 용법이 출현한다. Hentschel (1986:114)의 설명을 빌리면¹⁵⁾ 아래 예문에서 doch의 모순성은 고상한 민네의 이상에 따르면 기사에게 사례할 필요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해야겠다는 데 성립한다.

‘Mir hât ein ritter’ sprach ein wîp
‘gedienet nâ dem willen mîn.
ê sich verwandelelôt diu zît
so muoz im doch gelônêt sîn’. (Namenloses Lied Minnesangs Frühling 5,5)
(Mir hat ein Ritter, sprach eine Frau, nach meinen Willen gedient. Ehe sich die Zeit verändert hat, so muß ihm doch gelohnt werden.)

현대독일어에서 양상불변화사 doch는 세 종류의 동음이의어를 가진다. 그들이 사용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a) Haben wir keine Getränke mehr im Haus? Doch.
- (b) Er wollte baden gehen, doch es regnete.
- (c) Es war ihm verboten zu schwimmen, er hat es doch getan.

(a)문장에서 doch는 문장등가어인 응답불변화사로 사용되었다. 이때 doch는 어미 변화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출현하여 문장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앞 선 진술에 관련된다. 특히 부정을 부정한다. (b)문장에서는 등위 접속사로 사용된다. 이 접속사는 aber나 jedoch로 대체할 수 있다. (c)문장의 doch는 강세를 받는 부사이다. 이 부사는 dennoch나 trotzdem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부사의 doch는 문장 처음에 나올 수 있으며 그런 경우 어순은 도치한다.

이상의 통시적 의미 변화와 현대어의 동음이의어의 의미에서 유추되는 양상불변

15) ebd. 재인용.

16) ebd. S. 91에서 재인용.

화사 doch의 의미론적 요소는 대립적 의미와 인용적 의미이다. 그러나 양상불변화에서는 단어 본래의 의미가 희박해지고 의사소통적-화용론적 요인을 끌어들이어 각각 변형된 용법으로 사용된다. 양상불변화사가 등장하는 문장은 그 문장의 외형적 유형과 의사소통적 발화의도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doch는 질문 의도가 있는 의문문에서는 등장하지 못하지만 그 밖의 모든 문장 유형에 상이한 발화의도를 가지고 등장한다.¹⁷⁾

다음에서는 문장유형에 따라 발화의도와 의사소통적 화용론적 기능 등을 살펴 그 의미를 진단하고 우리말 번역 가능성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예문은 Helbig의 독일어 '불변화사 사전', Hentschel의 '독일어 불변화사의 기능과 역사', 독일 성서 공회의 '요한복음' 그리고 그 밖의 양상불변화사에 관한 문헌 등에서 발췌하였다.

3. 독일어 양상 불변화사 doch의 번역 가능성

doch는 두 사태 사이의 모순 혹은 대립성을 그 주제로 삼는다. 그 사태는 언어적 표현일 수도 있고 비언어적 태도일 수도 있다. 또는 암묵적으로 함께 생각하는 화자 또는 청자편에서의 기대나 의견일 수도 있다.¹⁸⁾

3.1. 진술문

3.1.1. 모순관계 표현

(1) 구체적 선행 발화에 대한 부분적 이의 표명: “하지만”

진술문에서 구체적 선행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특히 선행 명령이나 주장에 대해 이의나 반박을 나타낸다. 화자가 가지는 이의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되는 명제를 doch와 함께 진술한다. 선행 발화에 대한 이의는 부분적이어서 인용성을 지닌

17) Helbig/Buscha(1984); a.a.O. S. 487.

18) Hentschel(1986); a.a.O. S. 143.

다. 이때 doch는 “그러나, 그렇지만, 그래도, 하지만”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어의 양상불변화사가 문법화를 겪으면서 음운론적 상실과 의미론적 상실을 겪어 독립된 부류를 형성한 것에 상응하여 우리말에서도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 “하지만”을 권하고 싶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Ich widerspreche/stimme nicht zu: was du sagst
 관여적 상황: Ich nenne als Begründung meines Widerspruchs P.
 -> 표현: doch + P.

A: Mach das Fenster zu!(이하 Helbig 1994, S. 112f.)

B: Es ist doch viel zu warm im Zimmer.

(하지만 방이 너무 덥다.)

A: Wir müssen über die Straße gehen.

B: Jetzt nicht, die Ampel zeigt doch "rot".

(하지만 신호등이 빨간 불이야, 지금은 안 돼.)

A: Du hast aber wenig Fleisch gekauft.

B: Ich konnte doch nicht wissen, daß wir Besuch bekommen.

(하지만 나는 손님이 올 줄 몰랐다.)

A: Er ist der versprochene Retter!

B: Der Retter kommt doch nicht aus Galiläa!(Joh. 7,41)

(하지만 구세주는 갈릴리에서 나지 않는다.)

A: Nehmt den Stein weg!

B: Es rieht doch schon.(Joh. 11,39)

(하지만 벌써 썩은 냄새가 난다.)

화자가 제시하는 이의의 내용을 청자도 익히 알고 있다고 화자 측에서 생각할 때는 번역에 수사적 부정 의문문을 병용하여 “하지만, -않으냐?”로 번역할 수 있다.

A: Ich gebe dir lebendiges Wasser.

B: Du hast doch keinen Eimer.(Joh. 4,11)

(하지만 너에게는 두레박이 없지 않으냐?!.)

A: Nur wer von neuem geboren ist, wird die neue Welt zu sehen bekommen.

B: Er kann doch nicht in den Leib seiner Mutter zurückkehren und ein zweites Mal auf die Welt kommen!(Joh. 3,4)

(하지만 성인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A: Du darfst nicht am Sabbat einen Menschen gesund machen.

B: Ihr beschneidet doch eure Söhne, wenn es sein muß, auch am Sabbat, weil Mose angeordnet hat, daß eure Kinder am achten Tag beschnitten werden sollen.(Joh. 7,22)

(하지만 너희도 모세가 너희 아이들을 제 8일에 할례 주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안식일에도 너희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느냐?)

A: Wir suchen Jesus von Nazaret.

B: Ich habe euch doch gesagt, daß ich es bin.(Joh. 18,8)

(하지만 그게 나라고 말하지 않았니?)

(2) 구체적 선행발화에 대한 전적인 이의 표현: “무슨 소리야”

위의 “하지만”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인용적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 즉 상대자의 말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 발화 내용에 전적으로 이의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무슨 소리야”로 번역된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Ich widerspreche völlig/stimme völlig nicht zu:
was du sagst

관여적 상황: Ich nenne als Begründung meines Widerspruchs P.

-> 표현: doch + P.

A: Gib mir mein Buch zurück!(Helbig 1944, S. 113)

B: Ich habe es dir doch gestern schon zurückgegeben.

(어제 이미 돌려주었는데 무슨 소리야.)

A: Woher weißt du das?(Hentschel 1986, S. 130)

B: Das hast du doch selbst gesagt.

(네가 스스로 말해 놓고는 무슨 소리야.)

A: Ich bin kein Jünger von dem da drin.

B: Ich habe dich doch mit ihm in dem Garten gesehen.(Joh. 18,26)

(그와 함께 정원에 있는 너를 내가 보았는데 무슨 소리야!)

감탄의도를 가진 진술문에 사용되기도 한다.

A: Er ist das Brot, das vom Himmel gekommen ist.

B: Wir kennen doch seine Eltern!(Joh. 6.42)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무슨 소리아!)

B: Er ist doch Jesus, der Sohn Josefs!(Joh. 6.42)

(그는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무슨 소리아!)

경우에 따라서는 청자의 요청이나 질문에 대한 응답에 doch가 사용될 때 항의 표시보다는 그 요청이나 질문의 답이 화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기에 그러한 요청이나 질문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발화를 한 청자에게 가벼운 비판을 가하거나 친절한 동의 또는 안심할 것을 표현할 때가 있다.¹⁹⁾ 청자 자신의 행동에 관련된 내용이면 물어 볼 필요 없이 당연히 동의한다는 의미로 “무슨 소리아”로 번역 가능하다. 화자 행동에 대한 질문이나 요청에 대해서는 그 질문이나 요청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미로 “걱정 마”로 번역 가능하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Du brauchst nicht zu fragen/aufzufordern.

관여적 상황: Ich beantworte die Frage/Aufforderung mit Ja.

-> 표현: doch + P.

A: Darf ich mir ein Bonbon nehmen?(이하 Hentschel 1986, S. 130)

B: Du darfst doch es nehmen

(무슨 소리아, 먹어도 되구 말구.)

B: Das ist doch selbstverständlich.

(무슨 소리아, 당연하지.)

A: Hast du auch die Katze versorgt?

A: Denk bitte daran, die Blumen zu gießen!

A: Gib der Kleinen ein Stück Schokolade ab!

B: Das ist doch selbstverständlich.

(걱정 마, 당연한 일을 가지고.)

19) ebd. S.132.

(3) 직접적인 상대자의 선행발화가 없는 경우: “하지만“

직접적인 선행발화가 없더라도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내의 청자나 제삼자의 생각 또는 행동이 화자의 것과 모순관계에 있을 때 “하지만”으로 번역된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Du denkst/ Jemand denkt: P.
관여적 상황: Ich denke: nicht P.
-> 표현: doch + nicht P.

Das können wir doch so nicht machen.(이하 Helbig 1994, S. 113)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So kommen wir doch zu keiner Lösung.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다음의 경우는 부정의 내용이 화용론적 선행텍스트에 놓인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Du denkst/ Jemand denkt: nicht P.
관여적 상황: Ich denke: P
-> 표현: doch + P..

Ich komme doch schon.

(하지만 나는 간다.)

대화 상대자인 청자와는 무관하게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의 모순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doch가 사용되며 “하지만”으로 번역된다.

A: (Ich möchte sie lieber vermeiden.)

A: Aber ich bin doch gekommen, um sie durchzustehen. (Joh.12,27)

(하지만 나는 이것을 감내하기 위해 왔다.)

관여적 발화 상황이 다양한 경우도 있다. Ich habe doch hier irgendwo meine Schere hingelegt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²⁰⁾

- (a) 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독백)
- (b)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무엇을 찾는 이유를 설명할 때
- (c) 다른 사람에게 가위 찾는 일을 도와주거나 어디다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직접 요청할 때

그러나 세 경우 모두 그 화용론적 선행텍스트는 Ich finde meine Schere nicht 이다. 따라서 세 경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Ich finde meine Schere hier nicht.

관여적 상 Ich bin sicher: ich habe hier irgendwo meine Schere hingelegt.

-> 표현: Ich habe doch hier irgendwo meine Schere hingelegt.

(b):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Ich finde meine Schere hier nicht.

관여적 상황: Ich suche sie hier, denn ich denke: ich habe hier irgendwo meine Schere hingelegt.

-> 표현: Ich habe doch hier irgendwo meine Schere hingelegt.

(c):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Ich finde meine Schere hier nicht.

관여적 상황: Ich denke: ich habe hier irgendwo meine Schere hingelegt. Kannst du mir helfen?

-> 표현: Ich habe doch hier irgendwo meine Schere hingelegt.

가위를 여기 어딘가에 두었다는 명제와 가위를 찾지 못하는 반명제 사이에 모순이 성립한다. 이 모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하지만”으로도 번역 가능하다. 그러나 이 모순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러한 모순 자체에 대한 회의와 그 모순 제거의 확신

을 표시하기 위해 “분명”으로 번역할 수 있다.

Ich habe doch hier irgendwo meine Schere hingelegt (Hentschel 1986, S. 133)

- (a) 분명 여기 어딘가에 가위를 놓아두었는데.(독백)
- (b) 분명 여기 어딘가에 가위를 놓아두었는데 (못 찾겠네).
- (c) 분명 여기 어딘가에 가위를 놓아두었는데 (너 못 봤니?)

(4) 부문장에서: 주문장 행위에 대한 원인 설명: “그게 말이야”

doch는 조건절이나 양보절의 부문장 또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절에서도 사용된다. 여기에서는 기능성과의 모순이 성립하고 그 원인을 doch를 포함한 부문장이 설명한다. 이 경우에는 “그게 말이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Es könnte nicht so sein.

관여적 상황: Es ist so und der Grund ist P.

-> 표현: doch + P. im Nebensatz.

Ich war ziemlich sauer über den Dreck, weil ich doch gerade die Küche geputzt hatte(Hentzel 1986, S. 130).

(그 오물에 대해 내가 상당히 화가 났었어, 그게 말이야 방금 부엌 청소를 한 뒤였거든)

Die großen Autos, die doch mehr als 20 Liter Benzin verbrauchen, sind unpraktisch.(Helbig 1994, S. 112)

(그 대형 자동차들은 실용적이지 못해, 그게 말이야 20 리터 이상의 휘발유를 소모하거든.)

위의 첫 문장에 만일 doch가 없다면 “방금 부엌 청소를 한 뒤였기 때문에 그 오물에 대해 내가 상당히 화가 났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즉 weil 이가 원인이 되어 주절의 결과가 발생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서술해 주고 있다. doch가 들어가면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까? doch가 첨가되어서 내가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그 기능성과의 모순이 생기고 나는 상당히 화를 내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방금 청소를 마친” 이유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문장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대형 자동차라고 다 실용적이지 못 한 것은 아니고 실용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20리터 이상의 휘발유를 소모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대형 자동차는 비 실용적인 것이다.

3.1.2. 회상

(1) 화자와 청자가 잊고 있던 일의 회상: “정말/참/그래/맞아, -지?!”

알고 있으나 잠시 잊고 있거나 생각에 떠올리지 않던 사실을 다시 기억하여 알고 있음을 확인한다. doch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모순의 요소를 굳이 찾는다면 잊고 있었다는 점과 그것을 다시 기억에 떠올리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doch의 용법에는 앞의 용법에서와 같은 비난의 부정적 요소는 없다.²¹⁾ 또한 청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화자는 청자의 동의를 구하려 한다: 우리 말로는 수사적 의문문 “정말, -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정말”은 부사가 아닌 감탄사로서 화자 자신이 기억에 떠올리고 있지 않다가 방금 떠올린 것을 나타내는 것에 관여하고 “-지?!”의 결정 의문문은 청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수사적 의문문이다. 자신의 기억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 “정말”은 “참/그래/맞아”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Ich denke nicht daran und du auch.

관여적 상황: Ich erinnere mich daran und ich fordere dich auf, daran zu denken.

->표현: doch + P.

Diesen Plan haben wir doch neulich schon besprochen.(이하 Helbig 1994, S. 111)

(정말/참/그래/맞아, 이 계획을 우리가 최근에 이미 검토했었지?!.)

In dieser Gaststätte sind wir doch schon einmal gewesen.

(정말/참/그래/맞아, 전에 한번 우리가 이 음식점에 왔었지?!.)

Das letzte Mal sind wir doch nicht ganz fertig geworden.

21) Helbig(1994); a.a.O. S. 112, Anm. (1).

(정말/참/그래/맞아, 지난번에 우리 완전히 끝내지 못했었지?!)

Wir wollten doch heute abend ins Theater gehen.

(정말/참/그래/맞아, 우리 오늘저녁에 연극 보기로 했었지?!)

Du weißt doch, daß ich ins Ausland fahren muß.

(내가 외국에 가야 하는 거, 정말/참/, 너 알지?!)

Er ist doch ein erfahrener Chirurg.

(정말/참/그래/맞아, 그는 아주 노련한 외과의사지?!)

Wir müssen doch morgen nach Berlin.

(정말/참/그래/맞아, 우리 내일 베를린에 가야 하지?!)

Heute ist doch Sitzung.

(정말/참/그래/맞아, 오늘 회의 있지?!)

Ich selbst habe euch zwölf doch ausgewählt. Trotzdem ist einer von euch ein Teufel!(Joh. 6,70)

(그래, 나 자신이 너희들 12명을 선택했었지?! 그런데도 너희 중 한 명은 사탄 이구나!)

Du kannst doch Französisch. Was heißt denn bricolage?(Ickler 1994, S. 402)

(정말/참/그래/맞아, 너 붙어할 줄 알지?!. bricolage가 대체 무슨 뜻이야?)

(2) 청자가 잊고 있는 일에 대한 회상 요청: “-지?!”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청자가 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 화자가 청자의 의식에 그 사실을 불러들이기를 원하고 그것을 진술의 주제로 삼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지?!” 로 번역되거나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 부정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하여 번역할 수 있다: “-지 않니?!” 바로 앞의 경우와 차이는 화자가 자신의 기억 속에서 회상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회용론적 선행텍스트: Du denkst nicht daran.

관여적 상황: Ich fordere dich auf, daranzudenken.

-> 표현: doch + P.

Ich habe dir doch neulich von dem Unfall erzählt. Da hat sich jetzt folgendes ergeben...(Hentschel 1986, S. 130)

(최근에 내가 네게 그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었지?! 그 사고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

Mose hat euch doch das Gesetz gegeben. Aber keiner von euch lebt nach dem Gesetz. Warum wollt ihr mich töten?(Joh. 7,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없구나. 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Ich habe dir doch gesagt, daß du die Herrlichkeit Gottes sehen wirst, wenn du nur Vertrauen hast. (Joh. 11,40)

(내가 네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Da drüben ist doch die Post. Gehen Sie rechts daran vorbei und... usw.(Ickler 1994, S.402)

(저 건너편에 우체국이 있지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그리고 ...)

(3) 청자의 인식 확인: “-그렇지?!”

화자는 청자도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청자가 아직 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만약 있을 지도 모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청자에게서 확인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청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언표내적 행위를 수반한다. 이 때는 억양을 사용한 결정의문문에 부가적으로 확인 의문문을 덧붙여 번역한다: “-그렇지?!”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Du denkst, aber du sagst nicht P.
관여적 상황	Ich möchte vergewissern: du denkst P.
-> 표현:	doch + P.

Das Essen ist doch kalt.(Weydt 1969, S. 26)

(음식이 식었지, 그렇지?!)

Er arbeitet doch fleißig.

(그 사람 열심히 일하지, 그렇지?!)

Das mußt du doch zugeben.

(그 점을 너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그렇지?!)

3.2. 명령문

(1) 후속 행위를 주도하는 권유나 충고: “좀”

명령문에서 doch는 후속 행위를 주도하는 기능을 가질 때가 있다. 청자가 해당 행위에 생각이 아직 미치지 못하였거나 그 행위를 아직 하지 않을 때 친절하게 또는 정중하게 행동을 권유한다. 다시 말해 명령이 아닌 권유나 충고의 의미이다. 우리말로는 “좀”으로 번역한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Du tust es nicht.
관여적 상황:	Ich bitte dich es zu tun.
-> 표현:	doch + Satz im Imperativ

Komm doch herein! (Eijiro Iwasaki 1977, S. 64)

(좀 들어와!)

Setzen Sie sich doch! (이하 Helbig 1994, S. 113)

(좀 앉으세요!)

Nehmen Sie doch noch ein Stück Kuchen!

(케익 한 조각 더 좀 드시지요!)

Treiben Sie doch ein bißchen Sport!

(약간의 운동을 좀 하시지요!)

IB doch etwas!(Joh. 4.31)

(좀 드세요/ 식사 좀 하세요!)

Seht euch die Felder doch an!(Joh. 4,35)

(들을 좀 보아라!)

Laß doch den Hingerichteten die Beine brechen und sie vom Kreuz abnehmen.(Joh.19,31)

(처형된 자들의 다리를 꺾고 십자가에서 내리도록 좀 해 주십시오!)

친절함이나 공손함을 나타내기 위해 bitte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의도를 나타내거나, 주된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어떤 행위를 권유할 때는 mal 또는 mal bitte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Komm doch bitte herein!

(좀 들어와!)

Sprechen Sie doch mal mit dem Arzt!

(의사와 좀 상담을 해 보시지 그래요?)

Gib mir doch mal bitte den Hammer!

(망치 좀 다오!)

그러나 앞의 doch는 아직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행위를 주도하는 기능을 가지지
만 부정 명령문에서의 doch는 발화 시점 이전에 이미 시작한 행동을 나타낸다.
doch가 없는 부정 명령문과 비교하면 그 점이 분명하다.

Sei doch nicht traurig!

(슬퍼하지 좀 마라!)

(vgl.) Sei nicht traurig, wenn das mit dem Job nicht klappt.

(일자리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2) 이행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비난과 요청의 강화: “제발”

doch는 청자가 하지 않아 비판받는 행위와 연결 기능을 갖는다. 요청을 강화하
고 청자의 행위의 변화에 대한 소원을 표현한다. 절박함, 조급함, 화남, 비난의 의
미가 함축된다. 흔히 endlich, immer 등과 함께 사용된다.²²⁾ 이러한 경우에는 “제
발”로 번역된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Du tust es immer wieder nicht.

관여적 상황:

Ich fordere auf, es zu tun.

-> 표현:

doch + Satz im Imperativ

Komm doch endlich zum Essen! (이하 Helbig 1994, S. 113)

(제발 이제는 밥 먹으러 오너라!)

Schrei doch nicht immer so!

22) ebd. S. 113.

(제발 계속 그렇게 소리지르지 마라!)
Hör doch endlich auf mit dem Klagen!
(제발 불평 그만해!)
Geht doch jetzt bitte!
(너희들 이제는 제발 가거라!)

(3) 장애 제거: “그냥/ 여러 생각 말고/어쨌든”

화자의 요구가 가지는 일차적인 언표 내적 행위에, 앞선 모순이나 의심을 제거하거나 거절하는 또 다른 간접적인 언표 내적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그냥/ 여러 생각 말고/어쨌든”로 번역할 수 있다.²³⁾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Ich weiß: es gibt Sorgen, Hindernisse,
Bedenken usw..
관여적 상황: Ich fordere auf: darauf nicht zu achten und zu
tun, was ich will.
->표현: doch + Satz im Imperativ

Kommen Sie doch nach Leipzig!(Helbig 1994, S. 114)
(그냥/ 여러 생각 말고/어쨌든 라이프찌히로 오십시오.)

(4) 불이행 행위를 비난하면서 요구는 수사적일 때: “-지 그래?!”

청자가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의아해 하며 가볍게 비난하고 그 행동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 요구가 관철되리라는 확신이 희박하다. 이러한 경우는 “-지 그래?!”의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하여 번역할 수 있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Du tust es nicht
관여적 상황: Ich wundere mich von dir, es nicht zu tun

23) ebd. S. 113f.

und ich forere auf, es zu tun.

->표현: doch + Satz im Imperativ

Frag doch die Leute, die meine Worte gehört haben!(Joh. 18,21)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그래?!)

Dann nehmt ihn doch und verurteilt ihn nach eurem eigenen Gesetz.(Joh. 18,31)

(그렇다면 너희들이 데려다가 너희 법에 따라 처형하지 그래?!)

Kreuzigt ihn doch selbst!(Joh. 19,6)

(너희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박지 그래?!)

(5) 청자의 주제화: “-는”

청자를 제외한 그 누가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화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화자는 청자에게 그 행동을 요구한다. 선행 명제와의 모순을 doch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이 때는 명령을 받는 주어를 “-은/는”으로 주제화 시켜 번역하여 모순을 나타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해당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너” 또는 “너희”는 행동할 것을 명령한다. ‘하지만’을 병용하면 선행 명제와의 모순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Jemand tut es nicht

관여적 상황: Ich möchte; du tust es.

-> 표현: doch + Satz im Imperativ

(Ich gehe nicht zu diesem Fest.)

Geht ihr doch zu diesem Fest!(Joh. 7,8)

(하지만 너희들은 축제에 가거라.)

3.3. 보충의문문: 잊어버린 사항에 대한 확인: “-더라?”

원래는 알고 있다고 믿거나 안다고 확신하는 사항이 시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잠

시 잊어 기억이 나지 않거나 확실히 알 수 없음을 나타낸다. 질문을 던짐으로 화자는 청자로부터 그 사항을 알기를 원한다. “-더라?”로 번역할 수 있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Ich erinnere mich im Moment nicht daran.
관여적 상황: Ich frage dich und möchte es wissen/kennen.
-> 표현: doch + Fragesatz

Wie war doch Ihr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Wo arbeitest du doch?(이하 Helbig 1994, S. 114)
(너 어디서 일하더라?)
Wohin fahren Sie doch in Ihrem Urlaub?
(휴가를 어디로 가시더라?)
Wo waren wir doch stehengeblieben?
(우리 어디서 중단했더라?)
Wie heißt doch euer Hund?
(너희들 개 이름이 뭐더라?)
Wer war das doch gleich?
(방금 누구였더라?)
Wann haben Sie doch das letzte Mal eine Kolik gehabt?
(마지막 산통을 앓으신 게 언제였더라?)

3.4. 억양에 의한 결정의문문

doch는 질문 의도를 가진 결정의문문에서는 사용되지 못한다. 그러한 의문문에서는 상대자의 어떤 행동이(ja 혹은 nein) 모순을 형성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장 형식은 진술문이지만 억양을 사용하여 결정의문문이 된 문장에 doch가 사용된다. 억양에 의한 결정의문문의 doch는 확실한 사항을 재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1) 긍정문: “물론 -(겠)지?”

화자는 자신이 그러리라고 가정하는 명제를 청자의 대답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려 한다. 따라서 화자가 던지는 질문은 필요하지 않은 질문이다. 이미 답을 화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는 청자의 답을 미리 정해 놓고 있다. 물론 100%로 확인하는 경우는 아니고 아주 미미한 의혹이 존재한다. 그러나 화자는 자신의 doch를 동반한 질문을 통해 청자의 정해진 답을 유도함으로써 그 의혹을 제거하고 자신이 가정한 명제를 확인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이 경우의 doch는 “물론 -(거/겠)지?”로 번역할 수 있다. “물론”은 화자가 품고 있는 의혹 제거용이다. “-(거/겠)지”는 미미한 의혹을 나타내고 의문문 형식은 청자의 대답을 통한 확인 의도를 나타낸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Es könnte nicht so sein.
 관여적 상황: Ich frage dich und möchte es vergewissern.
 -> 표현: doch + Entscheidungsfrage mit Intonation

Du hast doch zugeschlossen?(Frank 1979, S. 4)

(너 물론 잠궈졌지?)

Das schaffst du doch bis morgen?(이하 Helbig 1994, S. 115)

(너는 물론 그것을 내일까지 할 수 있겠지?)

Du hilfst mir doch bei den Korrekturen?

(너는 물론 나를 교정할 때 돕겠지?)

Sie werden doch die Versammlung leiten?

(당신이 물론 그 모임을 주도하겠지?)

Du hast doch die Wohnung richtig abgeschlossen?

(너는 물론 문단속을 잘 했겠지?)

Sie trinken doch auch ein Glas Bier?

(당신도 물론 맥주 한 잔 하시겠지요?)

Sie kommen doch mit zur Gerichtsverhandlung?

(당신은 물론 법원의 심리에 함께 가지겠지요?)

Du bleibst doch zu Hause?

(너는 물론 집에 있을 거지?)

Du hast doch Bescheid gesagt?

(너 물론 말했겠지?)

(2) 부정문: “물론/설마 --아니겠지?”

위와 동일한 경우이지만 화자가 청자에 대해 품은 의혹을 부정적 수사적 질문을 사용하여 해소하려 할 때는 “설마 -아니겠지?”로 번역할 수 있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Es scheint : P.

관여적 상황: Ich bin sicher und möchte feststellen: nicht P.

-> 표현: doch + Nicht P. in Entscheidungsfrage mit Intonation

Du hast doch nicht das Fenster aufgelassen?

(너 설마 창문을 열어 놓은 것은 아니겠지?)

Du willst doch nicht behaupten, daß wir blind sind?(Joh. 9,40)

(설마 너는 우리가 소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겠지?)

Du willst doch nicht sagen, daß du mehr bist als Jakob?(Joh. 4,12)

(설마 네가 야곱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

3.5. 감탄문

(1) 예상 밖의 사실을 확인하고 놀람: “아니”

의문사가 있는 감탄문이나 평서문의 어순을 가진 문장에 감탄부호를 붙여 만든 감탄문에 doch가 사용된다. 방금 관찰했거나 경험한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화자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예상과 상위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놀란다. 화자의 예상과 해당 표현에 나타난 사태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해당 표현으로 화자는 자신의 인식을 바꾸었음을 나타낸다. 경탄, 놀람, 분노의 의미가 함축된다.²⁴⁾ 우리말로는 “아니”로 번역할 수 있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Ich wußte/erwartete/ahnte nicht so/anders.

관여적 상황: Ich bin überrascht.

24) ebd. S. 116.

-> 표현: doch + Ausrufesatz

Wie klug er doch ist!(이하 Helbig 1994, S. 116)

(아니, 그 사람 영리하군!)

Was bist du doch für ein Faulpelz!

(아니, 너 게으름뱅이로구나!)

Du schnarchst doch!

(아니, 너 코를 고는구나!)

Das ist doch eine Bodenlose Frechheit!

(아니, 그런 뻔뻔스러운 짓을!)

Das war doch unsere ehemalige Studentin!

(아니, 그녀가 옛날 우리의 여자 대학동창이었다니!)

Das ist doch die Höhe!

(아니, 그런 파렴치한 짓을!)

Du bist doch kein kleines Kind mehr!

(아니, 너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잖니!)

Bohrt der sich doch in aller Öffentlichkeit in der Nase!(Hentschel 1986, S.

130)

(아니, 그 사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코를 후비다니!)

Das ist doch der Mann, den sie töten wollten! (Joh. 7,25)

(아니,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했던 사람 아닌가!)

Da sieht man doch, daß wir so nicht weiterkommen!(Joh. 12,19)

(아니,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

was für ein 을 가진 문장은 특히 긍정적인 내용을 나타내며 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nicht wahr?”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²⁵⁾

Was war das doch für ein Fest!(Weydt 1969, S. 31)

(아니, 그것 참 멋진 축제다!(그렇지 않아?))

Was war das doch für ein Fußballspiel!(Helbig 1994, S. 116)

(아니, 그것 참 멋진 축구경기다!(그렇지 않아?))

25) Weydt(1969); Abtönungspartikeln, S. 31.

(2) 가벼운 의심을 극복하고 원래의 확신으로의 복귀: “역시”

위 경우보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에 한 단계가 더 첨가되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에 어긋나는 모순이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다시 그러한 의구심이 제거되고 원래의 사실로 복귀하는 경우에 doch를 사용하여 원래의 사실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경우는 “역시”로 번역된다. 이때 doch는 부정적 요소 없이 전적으로 긍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Er ist doch ein sehr erfahrener Chirurg라는 문장의 사용이 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화자는 그가 아주 노련한 외과의사라는 사실을 진작부터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화자는 그가 제아무리 노련한 의사라 할 지라도 이번에는 수술이 성공적이지 못하리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 여기에 화자가 알고 있는 이전의 사실과 현재 생각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수술도 성공적이었다. 화자는 그 동안 화자의 의식 속에 일어났던 모순을 제거하고 원래 알고 있던 긍정적인 사실로 복귀함을 doch를 포함한 문장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는 삼단논법이 성립한다: 긍정; 부정; 긍정.²⁶⁾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Ich weiß : P.

Ich denke: es könnte diesmal vielleicht nicht P.

관여적 상황: Ich stelle fest: P.

-> 표현: doch + P. in Ausrufesatz

Er ist doch ein sehr erfahrener Chirurg!

(그는 역시 아주 노련한 의사다.)

Sie sind doch ein Meister in solchen Dingen!(Tsugio Sekiguchi 1977, S. 6)

(당신은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 대가이십니다.)

Was meint ihr? Er kommt doch bestimmt nicht zum Fest!(Joh. 11,56)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역시 그 사람은 축제에 안 올 게 분명해!)

26) Tsugio Sekiguchi: Was heißt 'doch'?, S. 6f.

3.6. 기원문

의문사로 유도되거나 또는 의문사 없이 도치된 조건문 형식의 기원문에 doch가 사용된다.

(1) 소원과 현실사이의 모순 표현: “오죽 좋을까?”

doch는 발화 상황에서는 성취될 수 없거나 비현실적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을 나타낸다.²⁷⁾ 소원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나타내며 “오죽 좋을까?”로 번역될 수 있다.

화용론적 선행텍스트:	Nicht P.
관여적 상황:	Ich hoffe/wünsche: P.
-> 표현:	doch + P. in Wunschsatz

Wäre er doch ehrlich! (이하 Helbig 1994, S. 117)

(그가 정직하면 오죽 좋을까?)

Wenn er doch käme!

(그가 오면 오죽 좋을까!)

Wenn wir doch bald in den Urlaub fahren könnten!

(우리가 곧 휴가를 떠날 수 있다면 오죽 좋을까?)

Hätte er doch den Ratschlag des Arztes befolgt!

(그가 의사의 충고를 따랐더라면 오죽 좋았을까!)

Wäre er doch noch zu Hause geblieben!

(그가 집에 그냥 있었다더라면 오죽 좋았을까!)

(2)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제발 -기를!”

미래에 실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을 때는 “제발 -기를!”으로 번역할 수 있다.

27) Helbig: a.a.O. S. 117.

Wenn es doch morgen nicht regnen würde! (이하 Helbig 1994, S. 117)

(제발 내일 비가 오지 않기를!)

Würde er die Prüfung doch gut bestehen!

(제발 그가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4. 결론

양상불변화사 doch는 화용론적 선행텍스트와 모순관계 또는 인용관계를 나타내며 다양한 문장형식에 등장한다. 즉 질문의도를 가진 순수한 결정의문에만 등장하지 못하고 그 밖의 진술문, 명령문, 보충의문문, 억양에 의한 결정의문문, 감탄문, 기원문에 등장한다.

진술문에서 구체적 선행 발화에 대한 부분적 이의 표명을 하면 “하지만”, 또는 “하지만 -않으나?”로, 구체적 선행발화에 대한 전적인 이의 표명을 하면 “무슨 소리아”로 번역이 가능하다. 특히 청자가 화자의 행동에 대한 질문이나 요청을 할 때는 “걱정 마”의 번역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직접적인 상대자의 선행발화가 없더라도 화용론적 선행텍스트의 내용과 모순관계나 인용관계에 놓일 때에도 “하지만”으로 번역된다.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해당 표현의 내용이 모순관계에 놓일 때 그 모순관계 제거의 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명”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부문장에서 주문장 행위나 사태에 대한 원인을 설명할 때 “그게 말이야”로 번역 가능성을 제시한다. 진술문에서 회상을 나타낼 때 화자와 청자가 잇고 있던 일의 회상은 “정말/참/그래/맞아, -지?!”로, 청자가 잇고 있는 일에 대한 회상 요청은 “-지?!”로, 청자의 인식 확인은 부가 의문문인 “-그렇지?!”로 번역이 가능하다.

명령문에서는 후속 행위를 주도하는 권유나 충고는 “좀”으로,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비난과 요청의 강화를 나타낼 때는 “제발”로, 장애 제거라는 2차적 언표내적 행위를 포함할 때는 “그냥/ 여러 생각 말고/어쨌든”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불이행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 주된 의도이고 요구는 수사적인 것일 때는 “-지 그래?!”로 번역할 수 있다. 화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행위와의 모순을 이루는 청자 행위의 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제화에 사용되는 “-는”이라는 주격조사를 권하고 싶다.

보충의문문에서 잊어버린 사항에 대한 확인을 나타낼 때는 “-더라?”로, 억양에 의한 결정의문문에서 확실한 사항의 재확인할 때 긍정문의 경우는 “물론 -(거/겠)지?”로, 부정문의 경우는 “설마 --아니겠지?”로 번역된다.

감탄문에서 예상 밖의 사실을 확인하고 놀람을 나타낼 때는 “아니”로, 가벼운 의심을 극복하고 원래의 확신으로 복귀할 때는 “역시”로 번역이 가능하다.

기원문에서 소원과 현실사이의 모순이 있는 실현 불가능한 경우는 “오죽 좋을 까?”로, 미래에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제발 -기를!”로 번역 가능하다.

참 고 문 헌

- 곽병휴: 「뉘앙스 불변화사 Abtönungspartikel 'auch'의 번역시도」. in 『독일문학 36권 3호 통권 57집』, 1995, S. 242-262.
- _____: 「불변화사 'noch'의 의미론」. in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 1집』, 1996 S. 198-218.
- _____: 「독일어 불변화사 'auch'와 한국어 조사 『-도』」. in 『언어 제 22권 제 3호』, 1997, S. 369-389.
- 박상욱: 「독일어의 양상불변화사와 초점」. in 『독일어문학 9권 3호 통권 제 16집』, 2001, S. 235-257.
- 신운섭: 「독일어의 불변화사에 관한 의미론적 고찰」. 『독어교육 6집』. 1988, S. 110-138.
- 천복자: *Die Vermittlung von Modalpartikeln im Deutsch als Fremdsprache-Unterricht*. in 『독일어문학, 제 16집 9권 3호』, 2001, S. 343-361.
- Deutsche Bibelgesellschaft: *Die Gute Nachricht nach Johannes*. In *Die Bibel in heutigem Deutsch*,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1985.
- Diewald, Gabriele: *Grammatikalisierung, Eine Einführung in Sein Werden grammatischer Formen*. Niemeyer, Tübingen 1997.
- Frank, Dorothea: *Abtönungspartikel und Interaktionsmanagement Tendenziöse Fragen*. In: Hrg. Harald Weydt (Hg.) *Die Partikeln der deutschen Sprache*, Walter de Gruyter, Berlin/New York 1979.
- Grebe, Paul: *Duden Bd. 4 Grammatik*. Dudenverlag, Mannheim/Wien/Zürich 1973.
- Helbig, Gerhard: *Lexikon deutscher Partikeln*. Langenscheidt-Verlag Enzyklopädie,

- Leipzig/ Berlin/ München/ Wien/ Zürich/ New York 1994.
- Helbig, Gerhard/Buscha, Joachim: *Deutsche Grammatik*. VEB Verlag Enzyklopädie, Leipzig 1984.
- Hentschel, E.: *Funktion und Geschichte deutschen Partikeln*. Niemeyer, Tübingen 1986.
- Ickler, Theodor: *Zur Bedeutung der sogenannten 'Modalpartikeln'*. In *Sprachwissenschaft, Bd. 19*. Universitätsverlag Winter, Heidelberg 1994.
- Iwasaki, Eijiro: "Wie heißt er noch?" Zur "Bedeutung" von noch als *Abtönungspartikel*. In *Aspekte der Modalpartikeln*,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1977.
- Kirstein, B.: *Partikeln und Sprechsituation*. In *Partikeln und Interaktion*,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1983.
- Sekiguchi, Tsugio: *Was heißt 'doch'?, Eingeleitet und übersetzt von Kennosuke Ezawa*. In *Aspekte der Modalpartikeln*,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1977.
- Wegener, Heide : *Zur Grammatikalisierung von Modalpartikeln*. In: Irmhild Barz und Günther Öhlschläger (Hg.): *Zwischen Grammatik und Lexikon*, Niemeyer, Tübingen 1998.
- Weydt, H.: *Abtönungspartikel*. Verlag Gehlen, Bad Homburg v.d.H. Berlin/Zürich 1969.
- Weydt, H./ Hentschel, E.: *Kleines Abtönungswörterbuch*. In *Partikeln und Interaktion*.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1983.

Zusammenfassung

Koreanische Übersetzungsmöglichkeiten von Modalpartikel 'doch'

Kim, Hui-cha(Sunchunhyang Univ.)

Modalpartikeln, die auch Abtönungspartikeln, Würzwörter, Färbewörter usw. genannt werden, galten eine Zeitlang als Überflüssiges. Aber mit der "kommunikativ-pragmatischen Wende" hat die Partikelforschung einen enormen Aufschwung genommen.

Auch im Fremdsprachenunterricht waren Partikeln als etwas Unwichtiges oder in anderen Worten etwas schwer zu Behandelndes geblieben und wurden deshalb zur Seite geschoben. Mit Hilfe der Aufschwung der Partikelforschung in Deutschland untersuchte ich koreanische Übersetzungsmöglichkeiten von Modalpartikeln. Ich übernahm Diewaldsche Methode. Sie schlägt ein Beschreibungsschema vor: Modalpartikeln haben verweisende und verknüpfende Funktion. Sie weisen nämlich auf den pragmatischen Prätext zurück und bringen ihn in relevanter Situation mit der Modalpartikel enthaltenden Äußerung in Beziehung. Da braucht man also drei Ebenen: pragmatischer Prätext, relevante Situation und partikelhaltige Äußerung. Die Schwierigkeit der Übersetzungsmöglichkeiten von Modalkartikeln besteht darin, jeweiligen Prätext und jeweilige relevante Situation wiederherzustellen und auszudrücken.

In diesem Aufsatz geht es nur um "doch". "doch" ist eine der häufigsten Modalpartikeln und tritt in vielen verschiedenen Satzarten. "doch" tritt in Aussage-, Imperativ-, Ausrufe- und Wunschsätzen auf. Außerdem tritt "doch" in Ergänzungsfragen und Entscheidungsfragen mit Intonation auf und ist aber nur bei "echten" Fragen ausgeschlossen.

Aus der diachronischen Bedeutungsentwicklung und dem Bedeutungsvergleich zu ihren Homonymen stellten sich die semantischen Merkmale von "doch" als Adversativität und Konzessivität. Aber diese semantischen Komponenten werden bei dem Modalpartikel abgeschwächt und pragmatische Faktoren werden in verschiedenen Verwendungsmöglichkeiten verstärkt. Unter Berücksichtigung jeweiligen Prätextes und relevanter Situation schlug ich koreanische Übersetzungsmöglichkeiten von "doch" je nach der Satzart und nach der Verwendungsmöglichkeit vor.

[검색어] 불변화사, 양상불변화사, 누양스불변화사, 번역 가능성

Partikel, Modalpartikel, Abtönungspartikel, Übersetzungsmöglichkeit